

노인부모를 위한 유료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요구 조사

김옥수* · 김소선** · 김경옥***

김영애**** · 김희승***** · 박정숙***** · 최원자*****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는 출생률의 하락과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인해 노인인구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노인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치매를 비롯한 각종 노인성 만성질환과 신체적, 정신적 노화로 인한 심신장애가 동반되어 일상생활 수행능력이 약해지고 자립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의존성 노인이 증가하게 된다(김혜련, 문상식, 최은진, 2002). 의존적인 노인에 대한 부양 책임은 주로 가족들이 지게 되는데 최근 들어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 증가와 노부모 봉양에 대한 전통적인 가치관의 변화로 인해 가족이 직접 노인을 돌보는 기능은 약화되고 있다(이미애, 1998). 유수정, 김현숙, 및 한규량(2002)의 연구에 따르면 노인들 중 부부끼리 생활하는 비율이 40.5%이며 농촌지역 노인을 대상으로 한 박현정(2003)의 연구에서도 노부부끼리 사는 경우가 55%로 나타나 우리나라에서도 노인부부만으로 구성된 가족이 증가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추세에 따르면 2010년 경에는 70% 내외의 노인들이 자녀와 같이 살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박차상 등, 2002).

노인의 경제력은 다른 연령군에 비해 열악한 편인데 현재 전체 국민의 3.2%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데 비해, 노인인구의 경우는 이의 3배에 달하는 10.1%로 노인의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떨어짐을 알 수 있다. 또한 노인의 49.9%가 현재 자신의 경제상태를 나쁜 편으로 느끼고 있으며, 자신의 근로소득이 주수입원인 노인은 전체 노인의 23.3%, 연금 또는 퇴직금이 주수입원인 경우는 2.5%에 불과하여 대부분이 자녀로부터의 보조에 의존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01). 따라서 이러한 현상들은 노인부모가 있는 자녀들의 경제적 부담과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요구를 시사하므로 자녀들의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욕구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노년층의 급속한 증가에 비하여 지역 사회내의 노인 요양서비스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전문화된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 노인복지시설에 입소보호를 받고 있는 노인은 65세 이상 노인의 0.35% 정도에 불과한 실정으로 이는 선진국의 4-5%에 비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2). 따라서 추후로는 노인인구의 건강에 대한 전인적인 접근, 효율적이고 비용 효과적인 관리, 그리고 지역사회 주민의 접근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간호사 중심의 노인요양시설 공급을 증가시킬

* 이화여자대학교 간호과학대학 교수 ***** 가톨릭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 신촌세브란스병원 간호파트장
*** 서울아산병원 간호팀장 ***** 서울대학교병원 간호과장
**** 한양대학교 병원 간호감독

필요가 있다. 간호사가 노인요양시설을 설립할 수 있는 자격은 2003년도부터 법으로 설정되어(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22조) 유료노인요양시설 설립을 희망하는 간호사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일반적으로 시설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대상자들의 욕구에 대한 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노인부모가 있는 성인 자녀들의 노인부모를 위한 요양시설에 대한 요구를 살펴본다면 소비자 중심의 시설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 많은 요구 사항들 중에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고찰한 결과 시설 이용자들에게 특히 유용할 것으로 예측되는 노인요양시설의 이용의사, 비용, 운영자, 환경, 서비스 등에 대한 항목들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노인부모가 있는 성인 자녀들을 대상으로 유료요양시설에 대한 요구를 조사하여 우리나라의 문화와 정서에 맞고 비용 효과적이면서도 질적인 건강관리를 보장할 수 있는 유료노인요양시설의 모델을 제시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성인자녀들의 노인부모를 위한 유료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요구를 조사하는 것이다.

II. 연구 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성인자녀들의 노인부모를 위한 유료노인요양시설 이용에 대한 요구를 알아보기 위한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자료수집기간은 2004년 10월부터 2005년 3월까지이며 연구자들이 서울시에 거주하며 자신의 부모와 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하여 노인부모가 있는 30세 이상의 성인을 임의표출하였다. 연구자들은 자료수집에 앞서 연구목적과 설문지 작성 방법을 설명한 후 연구에 참여할 것에 동의한 대상자에 한하여 구조화된 설문지를 배부하고 회수하였다. 회수되지 않은 설문지와 설문작성이 완전하지 않은 설문지를 제외한 총 249부인 85%의 자료가 최종분석에 이용되었다.

3. 연구도구

본 연구를 위해 연구진들이 구조화된 설문지를 개발하였으며 질문내용에는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유료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인식 및 이용의사, 비용, 운영자, 환경, 서비스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었다.

4. 자료분석방법

자료의 분석은 SPSS 12.0 program을 사용하였으며 유의수준은 .05를 기준으로 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노인부모를 위한 유료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요구를 알아보기 위해 실수,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III. 연구 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40.45세로 연령범위는 30-64세였고 30대가 47.4%, 40대는 41.8%를 차지하였다. 여성이 83.1%였으며 기혼인 경우가 82.3%로 가장 많았고, 미혼인 경우는 16.5%였다. 대상자들의 대부분이 배우자(79.1%), 자녀(72.7%)와 동거하고 있었으며, 현재 친부모나 배우자의 부모와 함께 동거하고 있는 경우도 39.8%에 이르렀다. 대학을 졸업한 대상자가 65.1%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대학원 졸업 이상이 18.9%인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중 36.7%가 각 종 기타 직업에 종사하고 있었으며 31.7%는 전문기술직이라 응답하였다. 현재 가족의 주수입원은 본인과 배우자라고 응답한 경우가 49.0%로 가장 많았고 본인만이 주수입원인 경우는 22.1%로 그 다음을 차지하였다. 평균 월수입은 300만원 이상인 경우가 34.9%, 100만원 이상에서 200만원 미만인 29.3%, 200만원 이상에서 300만원 미만인 28.1%였다. 대상자들의 종교 분포를 살펴보면 기독교가 35.3%로 가장 많았으며 종교가 없는 경우가 29.4%에 이르렀다. 대상자들 중 노인을 부양한 경우 부양기간은 약 12년(138.28개월)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1>.

2. 유료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요구

1) 유료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인식 및 이용의사

대상자들은 노인요양시설에 대해 67.1%가 ‘약간 안다’고 하였으며 21.7%는 ‘전혀 알지 못한다’고 응답하였다. 시설에 대한 정보출처로는 매스컴을 통해서가

<표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249)

특성	n(%)
연령(연)	
M±SD	40.45±7.40
30-39	118(47.4)
40-49	104(41.8)
50-64	27(10.8)
성별	
남자	42(16.9)
여자	207(83.1)
결혼상태	
기혼	205(82.3)
미혼	41(16.5)
기타	3(1.2)
*동거인	
배우자	197(79.1)
자녀	181(72.7)
부모	99(39.8)
기타	20(8.0)
혼자 산다	15(6.0)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40(16.0)
대학 졸업	162(65.1)
대학원 졸업 이상	47(18.9)
직업 종류 (n=202)	
상업 및 서비스직	19(9.4)
사무직	34(16.8)
전문, 기술직	64(31.7)
기타	74(36.7)
무응답	11(5.4)
주수입원	
본인	55(22.1)
배우자	52(20.9)
본인과 배우자	122(49.0)
기타	20(8.0)
월수입(만원)	
< 100	13(5.2)
100 ≤ - < 200	73(29.3)
200 ≤ - < 300	70(28.1)
≥ 300	87(34.9)
무응답	6(2.4)
종교	
기독교	88(35.3)
불교	27(10.8)
천주교	60(24.1)
기타 종교	1(0.4)
종교 없음	73(29.4)
노인부양 기간(개월)(n=101)	
M±SD	138.28±118.31

*중복응답

46.2%로 가장 많았다. 대상자의 32.5%가 현재 또는 미래에 노인 부모를 요양시설에 모실 의향이 있는 반면 41.8%는 의향이 없었고 24.5%는 잘 모르겠다고 응답하였다. 이용하고자 하는 시설로는 유료노인요양시설이 41.0%로 가장 많았고, 무료노인요양시설은 36.5%를 차지하였다. 노인부모를 위해 노인요양시설을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대상자들 중 65.1%가 ‘노인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라고 그 이유를 말하였으며 다음으로는 ‘가족 모두에게 부담이 되어서’라는 응답이 42.6%였다. 노인요양시설을 이용할 의향이 없는 경우 응답자들은 그 이유로 ‘노인은 자식이 봉양해야 하

<표 2> 유료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인식 및 이용의사 (N=249)

항목	n(%)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인식	
전혀 알지 못한다	54(21.7)
약간 안다	167(67.1)
자세히 안다	27(10.8)
무응답	1(0.4)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정보 출처	
요양시설이 근처에 위치함	10(4.0)
친지나 주위의 소개	27(10.8)
홍보지	25(10.0)
매스컴	115(46.2)
기타	33(13.3)
무응답	39(15.7)
노인부모를 위한 요양시설 이용의사	
있음	81(32.5)
없음	104(41.8)
잘 모르겠다	61(24.5)
무응답	3(1.2)
이용하고자 하는 시설의 종류	
유료노인요양시설	102(41.0)
무료노인요양시설	91(36.5)
주간보호센터	13(5.2)
아무 곳이라도 상관없음	15(6.0)
무응답	28(11.3)
*요양시설 이용하려는 이유(n=169)	
부양해 줄 사람이 없으므로	40(23.7)
가족 모두에게 부담이 되므로	72(42.6)
부양자의 건강때문	21(12.4)
노인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어서	110(65.1)
기타	12(7.1)
*요양시설을 이용하지 않으려는 이유(n=166)	
경제적 부담감	50(29.9)
노인은 자식이 봉양해야 하므로	103(62.0)
노인을 모시는데 어려움이 없어서	21(12.7)
만족스러운 시설이 없어서	25(15.1)
주위의 시선이나 만류	14(8.4)
기타	11(6.6)

*중복응답

므로'(62.0%)를 가장 많이 선택하였으며 '경제적 부담감'은 29.9%로 다음을 차지하였다<표 2>.

2) 유료노인요양시설의 비용

대상자들의 38.0%가 향후에 부모가 노인요양시설을 이용할 때 본인이 경비를 부담할 것이라고 응답하였고 배우자는 20.9%, 자녀라고 응답한 경우는 17.7%인 것으로 나타났다.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시설의 비용으로는 50만원 미만이 44.3%, 50만원 이상에서 100만원 미만이 37.3%를 나타내었다<표 3>.

<표 3> 유료노인요양시설의 비용

항목	n(%)
향후 요양시설 이용료의 부담자(n=158)	
본인	60(38.0)
배우자	33(20.9)
자녀	28(17.7)
형제 또는 친척	18(11.4)
기타	11(7.0)
무응답	8(5.1)
적당한 시설 비용(만원)(n=158)	
< 50	70(44.3)
50 ≤ - < 100	59(37.3)
100 ≤ - < 150	19(12.0)
≥ 150	3(1.9)
기타	2(1.3)
무응답	5(3.2)

3) 유료노인요양시설의 운영자

응답자들의 82.3%가 '노인전문간호사'가 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을 희망하였고, 사회복지사가 운영하기를 희망하는 경우는 12.7%였다. 응답자들의 43%는 정부 기관에서, 31%는 민간, 사회단체 등의 비영리단체가 관리운영해 주기를 바라고 있었다<표 4>.

<표 4> 유료노인요양시설의 운영자

항목	n(%)
희망하는 시설 운영자(n=158)	
노인전문간호사	130(82.3)
의사	8(5.0)
사회복지사	20(12.7)
희망하는 시설 운영기관(n=158)	
정부기관	68(43.0)
민간, 사회단체 등의 비영리단체	49(31.0)
개인 운영의 비영리단체	8(5.1)
종교단체	30(19.0)
무응답	3(1.9)

4) 유료노인요양시설의 환경

응답자들은 노인부모를 위해 희망하는 시설의 동거인 수로 2인(51.3%)을 가장 많이 선택하였고 3-5인은 그 다음으로 31.6%를 차지하였다. 희망하는 방의 형태로는 온돌방이 67.1%, 침대방이 20.3%로 나타났으며 응답자들의 44.9%는 요양시설의 전체 침상수가 50개 미만인기를 희망하였다. 응답자들의 70.3%는 '비슷한 연령의 노인'이 방 구성원이 되기를 최우선으로 희망하였고 '같은 성별의 노인'을 선택한 응답자도 39.1%에 이르렀다. 시설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서비스 내용'(34.2%)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26.9%는

<표 5> 유료노인요양시설의 환경

항목	n(%)
희망하는 동거인 수(n=158)	
독방	25(15.8)
2인	81(51.3)
3-5인	50(31.6)
상관없다	1(0.6)
무응답	1(0.6)
희망하는 방의 형태(n=158)	
온돌방	106(67.1)
침대방	32(20.3)
상관없다	18(11.4)
무응답	2(1.3)
희망하는 침상 수(n=158)	
≥ 100	15(9.5)
50 - 99	49(31.0)
< 50	71(44.9)
상관없다	20(12.7)
무응답	3(1.9)
*희망하는 방구성원 (n=158)	
유사한 질병을 가진 노인	37(23.4)
같은 성별의 노인	61(38.6)
비슷한 연령의 노인	111(70.3)
상관없다	4(2.5)
기타	10(6.3)
시설 선택 시의 주요 고려요인(n=158)	
시설의 안전	42(26.6)
비용	22(13.9)
청결상태	20(12.7)
인적자원	11(7.0)
서비스 내용	54(34.2)
시설의 위치	5(3.2)
기타	2(1.3)
무응답	2(1.3)
시설의 위치 선정 시 우선 요인(n=158)	
주변에 의료시설 잘 되어 있는 곳	43(27.2)
교통이 편리한 곳	13(8.2)
주변환경이 쾌적한 곳	77(48.7)
보호자 거주지와 가까운 곳	23(14.6)
무응답	2(1.3)

*중복응답

시설의 안전이라고 응답하였다. 시설 위치의 선정에서 우선시 되는 요인은 ‘주변환경이 쾌적한 곳’으로 나타났다(48.7%)<표 5>.

5) 유료노인요양시설의 서비스

노인요양시설에서 제공해 주기를 원하는 서비스로 ‘의료와 간호서비스’가 94.3%로 가장 많았고 ‘건강증진 프로그램 서비스’가 78.5%, ‘재활서비스’ 71.5% 등으로 나타났다. 희망하는 시설설비는 ‘건강검진실’과 ‘여가활동실’이 각각 81.6%로 가장 많았으며 ‘휴게실’이 76.6%, ‘종교활동실’이 70.9%였다. 간호사 1인이 돌보는 노인 수는 4.7명이 적당하다고 응답하였다<표 6>.

<표 6> 유료노인요양시설의 서비스

항목	n(%)
*희망하는 서비스(n=158)	
의료와 간호서비스	149(94.3)
상담서비스	92(58.2)
재활서비스	113(71.5)
대체보완요법 서비스	91(57.6)
건강증진 프로그램 서비스	124(78.5)
일상생활지원 서비스	100(63.3)
특별행사 서비스	54(34.2)
이·미용 서비스	93(58.9)
기타	9(5.7)
*희망하는 시설설비(n=158)	
휴게실	121(76.6)
도서실	81(51.3)
여가활동실	129(81.6)
개인 면회실	85(53.8)
종교활동실	112(70.9)
음악요법실	89(56.3)
건강검진실	129(81.6)
헬스실	95(60.1)
기타	10(6.3)
바람직한 간호사 1인당 노인 수(n=158)	
M±SD	4.70±3.51
*중복응답	

IV. 논 의

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부모가 있는 성인 자녀들의 노인부모를 위한 유료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요구를 조사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대부분의 대상자들이 노인요양시설에 대해 ‘약간 안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전혀 알지 못한다’고 응답한 경우도 21.7%이므로 이들을 대상으로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홍보가 필요함을 알 수 있

다. 또한 대상자들은 주로 매스컴을 통해 노인요양시설에 대해 정보를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간호계에서는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정보를 대상자들이 흔히 접할 수 있는 매스컴을 이용하여 홍보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흥미로운 결과는 현재 또는 미래에 노인 부모를 요양시설에 모실 의향이 있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32.5%만이 ‘예’라고 응답한 점이다. 이는 만성 질환이나 기능손상을 가진 노인을 돌보는 100명의 간병 가족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지금 자신이 돌보고 있는 노인을 요양시설에 입소시킬 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60%(이인정, 2001)이었던 것과 부모님이 생존해 계시는 40세 이상 60세 미만의 부양자들의 50.9%가 노인부모를 위해 유료노인요양시설을 이용할 의사가 있다고 보고한 것(신영순, 2002)에 비해 낮은 결과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일반적으로 자녀들이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필요성에는 공감하고는 있지만 우리나라 문화 특성상 자식은 부모를 모셔야 한다는 정서가 만연함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이는 노인부모를 위해 노인요양시설을 이용하지 않겠다면 그 이유로 ‘노인은 자식이 봉양해야 하므로’라는 항목을 가장 많이 선택한 것에서도 알 수 있다. 또한 박현정(2003)의 연구에서 노인들이 노인복지시설의 입소를 원하지 않는 주요 이유 중의 하나로 당연히 자식이 부양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보고한 결과와도 일맥상통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경제적 부담감도 시설이용을 감소시키는 이유 중 하나로 대두되어 경제적인 부담감을 줄이기 위해서는 국가차원에서 요양시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주는 방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대상자들이 이용하고자 하는 시설의 종류로는 무료노인요양시설(36.5%)도 많지만 유료노인요양시설(41.0%)을 가장 많이 선택하였고 노인요양시설을 이용한다면 ‘노인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 주기’ 위함이 가장 큰 이유로 나타났는데 이는 노인요양시설의 이상적인 모델이 서비스 강화에 중점이 두어져야 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 노인부모를 위해 요양시설의 이용료를 부담하게 되는 사람은 대부분이 본인과 배우자라고 응답하였고 시설 이용 비용으로 월 50만원 미만을 가장 많이 선택하여 최소한의 비용으로 입소가 가능한 유료노인요양시설을 필요로 함을 알 수 있다. 실비요양시설의 입주 노인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결과(김환수, 2002)에서도 대상자들의 84%가 자식이 제공해 주는 시설비로 입

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노인부양가족들의 시설비에 대한 부담감을 짐작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대상자들은 대부분이 노인전문간호사가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는 전문간호사에 대한 필요성을 보여주어 간호계의 입장에서 볼 때 의미있는 결과이며 노인요양시설의 운영자로서 노인전문간호사의 입지를 명확하게 하여야 할 것이다.

희망하는 입실 동거인 수로는 2인(51.3%)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3-5인(31.6%)이었다. 독방에 대한 선호는 15%에 불과하였다. 이는 독방에 대한 경제적 부담감과 아울러 친구 역할을 할 수 있는 노인들이 함께 거주함으로써 외로움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기대하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Adams, Sanders, 및 Auth (2004)도 시설에 거주하는 노인들은 친구의 방문이 적거나 사회적 네트워크가 넓지 않을 때 외로움의 정도가 커진다고 보고하였다. 방 구성원으로는 비슷한 연령의 노인을 가장 많이 선호하고 있었는데 이는 역시 친구가 나이 들어 외로울 때 친구가 필요함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기타 의견으로 배우자와 함께 동거하기를 원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러한 점은 시설 운영자들이 세심하게 배려할 여지가 있는 부분으로 사료된다.

희망하는 방의 형태로 침대방보다 온돌방을 선호하였는데 이는 노인들의 특징을 반영하는 것이라 볼 수 있어 시설 설립 시 고려할 만한 부분이라 여겨진다. 대상자들이 50개 미만의 침상 수를 선호하는 것은 너무 크거나 작지 않은 규모의 시설을 원하는 것으로 비용효과적인 면을 고려하여 적당한 수준의 소규모 시설을 계획함으로써 가정적이고 인간적인 환경을 조성해 줄 필요가 있다.

노인요양시설을 선택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요인으로는 서비스 내용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의 설문조사에서도 나타났듯이 노인요양시설을 이용할 의향이 있는 경우 그 이유로 노인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이었다. 우리나라는 현재 전문화된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를 갖고 있는데(정경희, 오영희, 변재관, 유원선, 이윤경, 2002) 간호사들은 전공분야의 특성을 십분 이상 발휘하여 차별화된 노인요양시설을 설립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시설 운영자들은 타율적인 평가기준이 아닌 스스로 자율평가를 함으로써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며 입소자 중심의 욕구를 수시로 파악하여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요양시설의 위치 선정 시 우선요인으로는 주변환경이 쾌적한 곳이라 응답한 대상자가 많았다. 따라서 요양시설의 설립에 적당한 곳은 노

인의 건강을 유지, 증진시켜 줄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 곳이어야 할 것이다.

응답자들은 '의료와 간호서비스'를 가장 많이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건강증진 프로그램 서비스', '재활서비스', '일상생활지원 서비스'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년기에 가장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 바로 건강문제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결국 노인요양시설은 단순히 노후를 편안하게 보낼 수 있는 곳으로서의 역할만이 아니라 노인들이 평생을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최대한의 도움을 주는 곳이라 할 수 있겠다. 희망하는 시설설비로는 '건강검진실'과 '여가활동실'이 가장 많았는데 이 결과 역시 노인부모의 건강에 대한 자녀들의 관심이 반영된 것이라 볼 수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실제 노인들이 희망하는 요구 사항들을 조사하여 이와 비교해 보는 것이 필요하리라 여겨진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대상자들이 고학력의 여성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다양한 집단의 대상자들에 대한 요구 조사가 필요하다.

현재 노인들을 위한 부양대책이 노인의 보건복지와 관련된 커다란 과제가 아닐 수 없으며 이들 노인의 보건 의료와 간병수발을 포함하는 장기요양보호시설의 확충이 시급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활용한다면 좀 더 대상자들을 위한 이상적인 시설이 설립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유료노인요양시설 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우선적 단계로서, 성인 자녀들의 노인부모를 위한 유료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요구를 알아보기 위한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대상자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30세 이상의 성인 249명이며 2004년 10월부터 2005년 3월까지 실시되었다. 본 연구의 자료수집을 위해 연구자들이 구조화된 설문지를 개발하였고 설문내용에는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건강관련 특성, 유료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인식 및 이용의사, 비용, 운영자, 환경, 서비스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었다.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2.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산통계 처리하였으며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유료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요구를 알아보기 위해 실수,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현재 또는 미래에 노인 부모를 요양시설에 모실 의향이 있는 대상자는 32.5%였으며 유료노인요양시설

(41.0%)을 가장 많이 선호하였다. 노인요양시설을 이용할 의향이 있다면 그 이유로 '노인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44.2%)라고 하였다. 향후에 노인요양시설의 이용료를 부담하게 될 사람은 본인(38.0%)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시설의 비용으로는 월 50만원 미만(44.3%)인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대부분(82.3%)은 '노인전문간호사'가 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을 희망하였고, 정부기관에서 시설을 관리 운영해 주기를 희망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희망하는 동거인 수는 2인(51.3%)이 가장 많았고 온돌방(67.1%)을 가장 많이 희망하였다. 요양 시설의 전체 침상수는 50개미만(44.9%)이기를 바라고 있었으며 '비슷한 연령의 노인' (70.3%)이 방 구성원이 되는 것을 선호하였다. 시설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서비스 내용' (34.2%)이었으며 '주변환경이 쾌적한 곳'(48.7%)이 시설의 위치 선정 시 가장 우선 요인이었다. 노인요양시설에서 제공해 주기를 원하는 서비스에는 '의료와 간호서비스'(94.3%)가 가장 많았고 시설설비로는 '건강검진실'과 '여가활동실'(81.6%)을 가장 많이 희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노인부모를 요양시설에 모실 의향이 있는 대상자가 약 1/3로 타 연구결과에 비해 낮았다. 대부분의 대상자들은 노인전문간호사가 운영하기를 원했으며 시설 비용으로 월 50만원 이하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추후 노인전문간호사가 대상자의 요구에 맞는 시설을 운영할 때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에서의 보조금 지원 강화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연구결과들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1. 노인요양시설의 모델을 개발할 때 우리나라 문화 정서에 맞는 분위기와 노인들의 주요 관심사인 건강 측면을 좀 더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
2. 추후로 향후 노년기를 맞이하게 될 중년 대상자와 현재 노년기에 속해 있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요구를 조사하여 본 연구의 결과와 비교할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 김환수 (2002). *실비노인요양시설 입주노인의 시설에 대한 욕구에 관한 연구* 충남 소재 정에마을 중심으로. 선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충남.
- 김혜련, 문상식, 최은진 (2002). *서울시민 보건지표 조사 및 건강증진프로그램 개발* 서울시민을 위한 건강증진 프로그램. www.kihasa.re.kr
- 박차성, 김옥희, 배창희, 엄기옥, 이경남, 정상양 (2002). *한국노인복지론* 서울: 학지사.
- 박현정 (2003). *농촌거주 노인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에 관한 연구* 전남 강진군을 중심으로 경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경기도.
- 보건복지부 (2001).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www.mohw.go.kr
- 신영순 (2002). *유료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서울.
- 유수정, 김현숙, 한규량 (2002). *재가노인의 신체적 건강, 자아존중감, 사회적지지 및 보건복지욕구 조사-치매 및 우울의심노인과 정상노인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노년학*, 22(3), 115-133.
- 이미에 (1998). *노인요양시설입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미국의 부양제공자의 부담감을 중심으로-*. *한국노년학*, 18(2), 80-96.
- 이인정 (2001). *노인간병가족의 요양시설 이용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 연구*, 17, 175-195.
- 정경희, 오영희, 변재관, 유원선, 이윤경 (2002). *무료 및 실비 노인요양시설에서의 인권실태 사례조사*. www.kihasa.re.kr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2). *중산 서민층 치매노인 등 질환노인 보호강화* www.kihasa.re.kr
- Adams, K. B., Sanders, S., & Auth, E. A. (2004). Loneliness and depression in independent living retirement communities: Risk and resilience factors. *Aging & Mental Health*, 8(6), 475-485.

- Abstract -

Key concept : Needs, Nursing homes

The Needs about Paying Nursing Homes for Elderly Parents

Kim, Ok Soo*Kim, So Sun**

Kim, Kyoung Ok***Kim, Young Ae****

Kim, Hee Seung*****Park, Jeong Suk*****

Choi, Won Ja*****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needs about paying nursing homes for elderly parents. **Method:** Subjects consisted of 249 adults with elderly parents. A structured questionnaire was developed by researchers for this survey.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recognition and an

intention of utilizing about paying nursing homes, expenses of paying nursing homes, an operator of paying nursing homes, environment of paying nursing homes, and service of paying nursing homes were included in the questionnaire. **Result:** The frequency of subjects with intentions of utilizing nursing homes for elderly parents was 32.5%. Forty-one percent of them wanted paying nursing homes. Gerontological nurse practitioner was preferred as a operator of nursing homes by 82.3% of subjects. They hoped that medical and nursing service were provided in nursing homes. **Conclusion:** The results indicate that health is a main concern for elderly parents considered by adult children. It is needed to provide services of good quality and a low expense for ideal model of paying nursing homes.

* Professor, College of Nursing Science, Ewha Womans University

** Associate Professor, College of Nursing, Yonsei University

*** Nursing Team leader, Asan Medical Center

**** Supervisor of Nursing Department, Hanyang University Hospital

*****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Catholic University

***** Nursing Director, Yonsei University Medical Center

***** Assistant Director of Nursing,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